

'마지막 1°C' 올리기 총력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
경기력 향상에 '온 힘'



전북스포츠과학센터에서 측정받는 우수 선수들.

(사진=전북도체육회 제공)

"99도의 물을 끓게 하는 마지막 1도처럼,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9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선수들의 막바지 훈련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들이 선수들의 훈련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는 현 시점이 마지막 1도를 올려 경기력 향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센터는 선수 개인별 기술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데 선수별 기술의 성공과 실패 장면을 촬영하고 실패의 원인이 되는 주요 포인트를 찾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벌이고 있다.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제퍼(Zephyr)를 선수들이 착용한 뒤 실제 경기와 닮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심박수와 젖산(피로 원인 물질) 등을 분석, 경기 전·후와 영양섭취·피로회복 방법 등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과학고실 등을 개최하는 등 단체(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선수 개인별 실력보다는 팀 구성원의 역할분담, 용병술 그리고 팀 응집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영란 전북스포츠과학센터장은 "지난해 치러진 전국체전에서 종합3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낸 만큼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100회

대회에서도 전북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원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들이 후회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생활체육으로 완주에서 가을 만끽

파크골프·걷기·축구·배구 등 대회 다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9월, 완주군 곳곳에서 다채로운 생활체육행사가 펼쳐진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날과 내달 파크골프 대회, 걷기대회, 축구대회, 배구대회 등 생활체육행사가 완주 전역에서 열린다.

우선 제주, 호남, 영남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 등들이 참여하는 '제1회 제·호·영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오는 28일 완주군 봉동생강공공공원 파크골프장에서 펼쳐진다.

도시공원, 체육공원 및 접근성이 용이한 녹지 공간에서 열리는 파크골프대회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게임요소가 가미된 스포츠다. 대회가 열리는 봉동생강공공공원 파크골프장은 36홀 정식규격을 갖추고 있다.

제·호·영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에는 대구, 울산, 부산,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 파크골프 협회 대표 및 선수단 등 25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같은 날, 만경강일원에서는 '완주군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고산생활체육공원에서는 '전북 이순추구대회'도 개최된다.

완주군 가족사랑 걷기대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각종 성

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봉동교에서 출발해 코스모스가 활짝 핀 만경강 길을 걸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고산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전북 이순추구 대회는 전라북도 60대 축구팀 클럽 동호인들이 선수로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10월에도 완주군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된다.

6일 ▲완주 삼례문화예술촌배 축구대회 ▲구이 모악산배 축구대회 ▲완주군수배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9일에는 ▲전북 가족탁구대회, 12일에는 ▲완주군수배 배구대회가 개최된다.

13일에는 ▲와일드푸드배 축구대회 ▲완주군수배 전북수영마스터대회, 19일에는 ▲와일드푸드배 자전거대회, 22일에는 ▲완주군수배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종목 체육대회도 10월에만 7건이나 된다.

군 관계자는 "선선한 가을을 맞아 체육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며 "관내 개최로 완주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국체전

익산 남성고 배구부에 격려품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맞아 전북도 선수단의 우승을 기원하며 익산 남성고등학교(교장 강인상) 배구부에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장근 본부장은 익산시 동서로에 위치한 남성고등학교를 찾아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배구선수단을 격려하고 5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 등을 전달했다.

남성고등학교는 전통 있는 배구 강호로 지난 제99회 전국체전에서 남고부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전국체전 2연패를 노리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곧 다가올 전국체전에 대비해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값진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며 "농협은행은 전북도의 승리와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00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며, 전북 선수단은 약 1600여명(선수 1217명, 임원 383명)이 참여한

/김윤상 기자

'전국 유소년 야구팀, 순창으로 모여라'

강천산배 전국대회, 내달 3일부터

제3회 순창 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팔덕야구장 등 총 10개 구장에서 동시에 개막된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59개 지역 115개 팀 2000여명이 참가하며 전라북도와 순창군, 순창군체육회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1~3학년 '새싹리그', 초등학교 4~5학년 '꿈나무리그' 청룡, 백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1 대상으로 '유소년리그' 청룡, 백호 등 총 5개 리그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예선은 조별리그, 결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유소년 야구대회를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야구 대회와 더불어 열리는 학부모 대상의 파파스리그에 9개팀 200여명이 별도로 참가해 큰 인기를 끌 예정이다.

순창군에서는 지난 2월에 140개팀 참가한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번 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10월 19일부터 2일간 순창군수배 호남, 충청권 유소년야구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2020년 동계시즌 전지훈련팀도 방음이 예정되어 있어, 순창군이 대한민국 유소년야구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교육청 야구단, 공무원야구대회 준우승

전북교육청 야구단(감독 박경준, 샘치초 교사)이 제10회 새만금 군산시장이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군산 금강1.2구장에서 전국 24개 공무원 야구팀이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전북교육청 야구단은 예선 통과 후 4강전에서 서천군청을 12-1로 이겼으나, 결승에서 서울경찰청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장은석(전주덕일초 교



사는 감투상을, 최지훈(전북교육연구정보원 주무관)은 미기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 공공스포츠클럽 신규 선정

문체부 공모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

전북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19 제2차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사업'에 공모한 장수군이 엄격한 심사를 통과·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수군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은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가운데 중소도시형으로 선정됐으며 3년간 6억원(연 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탁구와 배드민턴, 축구 등 3개 종목을 운영하며 장수군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장수군이 신규 선정되면서 전북지역 스포츠클럽은 총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에 진행 된 제1차 스포츠클럽 선정 사업에서 전주는 대도시형으로 정읍과 부안은 중소도시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들이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나 체육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중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며 현재는 전북을 포함한 총 97개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중이다. /장은성 기자

다정하게, 넘실넘실 꽃처럼 고운 님, 날 보러와요!

옥정호 물안개 사이로
청명한 숲(松) 향 흐르고
연분홍 구절초 꽃 바다
투명한 가을 햇살 속 넘실대면
깊어가는 정음의 가을...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
가을바람 머문 그곳,
구절초테마공원에서 펼쳐지는 연분홍 가을동화
제14회 정음구절초꽃축제!
떠나보자, 정음으로!

발걸음 닿은 곳마다 쌓이는 추억
마음껏 담아보는 소중한 이의 행복한 한때
사랑의 마음 가득 담은 소중한 꽃편까지...

구절초밭에서 펼쳐지는 가을날의 환상동화!
구절초꽃축제가 그대의 행복한
가을날을 응원합니다.

정음 구절초 꽃축제

제14회 정음 구절초꽃축제가
아름다운 그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 10. 5. ~ 20, 구절초테마공원(정음시 산내면 매죽리 571)

주최 정음시, 주관 정음시구절초꽃축제 추진위원회
문의 농업정책과 ☎063.539-6171~3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정음시
JEONGEUP-SI